

2022 경기도 예술인 소모임 지원 <팔꿈치> 최종 심의평

‘2022 경기도 예술인 소모임 지원 사업 <팔꿈치>의 취지는 경기예술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예술인 소모임을 발굴하고, 발굴된 소모임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자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술 창작과 활동, 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많은 고민을 보여주었으며 개인이 아닌 다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의 면면을 보여주었다. 선정에 있어 심사위원들이 중요하게 고려한 바는 지원한 소모임의 활동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설계되었는가와 이를 통해 산출한 결과들이 향후 예술계 네트워킹 효과 및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지 면밀히 살피고자 했다. 따라서 소모임의 활동 과정과 그에 기반한 관계망 확장에 주목하고 있는바 소모임의 정체성과 향후 확장성에도 가중치를 두었다. 최종 선정은 각 예술장르별 특성을 고려하고, 각 장르별 시의성 있는 주제 의식과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의 만장일치로 최종 5개의 모임을 선정했다.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예술 장르의 구분을 떠나 모든 지원자들이 비슷한 문제와 공통 관심사를 보여주었지만 소모임의 활동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풀어내는 구체적인 계획이 다소 부족하게 보여 이에 대한 보완과 설계의 필요성이 느껴졌다. 더불어 짧은 사업기간과 작은 지원 액수로 인해 지원자들의 의지에 비해 유의미한 활동을 만들기에 어려워 보이는 경우도 꽤 보였다. 차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사업의 취지가 더 명확해진다면 더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지원과 결과물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2. 10. 11.

심의위원 김정연, 안소연, 이성재, 홍태림